

푸코로 읽는 영화 <네버 렛 미 고>의 휴머니즘

Humanism of The Movie <Never Let Me Go> by Foucault

최영미, 조이운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

Young-Mi Choi(chosuan01@daum.net), I-Un Jo(choiw5@daum.net)

요약

본 연구는 영화 <네버 렛 미 고>를 푸코의 권력이론 중 생명권력과 규율권력이 억압하는 사회적 구조에서 권력에 함몰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실현하려는 인간의 가치로 분석하고자 한다. 과거 생사여탈권을 쥔 군주권력이 시행하던 신체형은 18세기 이후 생명권력으로 변모하여 인간의 신체를 교정하고 규율에 맞는 능력을 부여하여 기계처럼 작동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생명권력의 통제 속에서 인간은 질병을 치료 받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안전 욕구를 달성하며, 생산재로서 기능한다. 학교는 생명권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훈육을 통해 신체를 통제하고 규율을 내면화시킨다. 이 영화는 기존 복제인간을 소재로 한 영화들과 차별성이 있다. 복제인간들이 장기 기증자의 역할을 별도의 저항 없이 순응하거나 원본인간과 복제인간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 점이 그러한 예다. 또한 기존 소설과 영화가 미래를 배경으로 한 것과 달리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는 과거 회고 형식을 띤 점도 그렇다. 이들은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관계에 의존하거나 상실을 경험하며 독립적 자아를 찾고 유한한 삶의 한계 속에서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 중심어 : | 생명권력 | 규율권력 | 인간적 가치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ilm "Never Let Me Go" by human value which is to be realized in the social structure suppressed by the power of life and the power of discipline in Foucault's power theory. After 18century having changed monarch power holding the power of life-and-death that enforced corporal punishment, bio-power that corrected body and granted ability suitable discipline to people makes people worked like machine. In control of the bio-power, human achieved safe desire that cure disease and prolong life-span and worked as producer goods. School controls body and make people internalized rule using discipline for working bio-power efficiently. There is differentiation between this movie and the other about human clone. The clones adapt role as organ donator without resistance and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original and copy. Instead of preexistence novel and movie that is set in future, it is a form of past retrospect from the 1970s to 1990s. having emotions, They find independence ego and realize value of life in finite living by depending relation or undergoing loss.

■ keyword : | Bio-power | Discipline-power | Value of Human |

I. 서론

SF영화는 초현실적 사건과 가상의 과학을 바탕으로 인간의 무한한 호기심과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외계인, 우주, 시간여행, 인공지능, 복제인간 등을 소재로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과학기술이 지니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표현한다. 대부분의 SF영화들이 디스토피아의 내용을 담는 것은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 이루어낸 현재의 결과물이 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인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반대 급부에 대한 쟁점들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SF영화 중에서 복제인간을 소재로 한 영화에 주목한다. 난치병을 치료하거나 생명을 연장시키는 생명과학 기술은 인간에게 혜택을 주지만, 복제 기술에 의한 생명 창조로 인한 변화들은 기술의 효용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영화들은 복제에 수반될 수 있는 기형의 발생과 생명을 도구화한다는 비윤리적 딜레마를 비롯하여 복제 인간에 대한 개념과 전통적인 인간 개념 사이의 갈등, 혹은 원본 인간과 복제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 등 매우 다양하다.

표 1. 복제인간 소재 영화

년도	영화제목	내용
1982	블레이드 러너 (Blade Runner)	복제인간을 제거하는 임무를 띤 복제 인간이 느끼는 삶에 대한 애착과 인간미
2000	6번째 날 (The 6th Day)	인간 복제를 둘러싼 거대한 음모에 휘말리는 인간의 삶
2001	리플리컨트(Replicant)	범죄자를 쫓기 위해 만든 복제인간이 범죄자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내용
2002	스타워즈 에피소드 2클론의 습격(Star wars:Episode 2-Attack of the clones)	전쟁을 위한 군인 복제
2003	블루프린트(Blueprint)	불치병의 천재피아니스트가 자신의 복제 인간과 겪게되는 갈등
2005	아일랜드(Island)	장기제공 목적의 복제인간의 탈주
2009	문(Moon)	고립된 상황에서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복제인간의 우정
2010	음(Womb)	연인의 유전자를 복제 해 복제인간을 낳은 후 겪게 되는 정체성과 관계의 혼란
2017	블레이드 러너 2049(Blade Runner 2049)	인간과 복제인간의 경계와 정체성

[표 1]에서 보면 이러한 소재의 영화는 특수효과를 통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복제인간으로 인해 공격당하고 파멸하는 인간을 그리거나 특수효과를 최소화하여 첨단기술의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인간미를 구현하는 영화로 나올 수 있다. 전자는 <블레이드 러너>, <6번째 날>, <아일랜드> 후자는 <블루프린트>, <더 문>, <네버 렛 미 고>와 같은 영화를 들 수 있다. 영화<네버 렛 미 고>는 2005년 출간된 소설 <나를 보내지 마>를 원작으로 2010년 제작됐다. 1990년대의 영국을 배경으로 복제 인간 캐시의 내레이션을 통해 회고의 형식을 취한다. 영화의 각색 형태는 원작의 캐릭터와 서사구조를 그대로 차용했다. 대부분의 복제인간을 소재로 한 영화들은 인간과 복제인간에 대한 이원적 관점으로 파생되는 윤리와 철학을 드러낸다. 본 논문은 영화 <네버 렛 미 고>를 복제인간의 소재는 등장하지만 이원적 관점을 배제하고, 푸코의 생명권력과 규율권력에 저항하고 쟁취하는 인간적 삶의 가치로 간주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표 2. 영화 속 복제 인간 선행연구

연구자	년도	내용	분석대상
정미숙	2007	삶의 가치	블레이드러너
강순규	2011	인간의 실존 불안	블레이드러너
정원식	2011	이중적 관계 불안	블루프린트
김응준	2013	인간정체성	블루프린트
천현순	2014	복제윤리	문학과 영화
이다은	2015	인간사유방식	SF영화

표 3. 소설과 영화 <네버 렛 미 고> 선행연구

연구자	년도	내용	분석대상
Matthew Eatough	2011	복제인간교육	소설분석
Tiffany Tsao	2012	종교와 생명공학의 폭력성	소설분석
김대중	2013	인간성 위기	소설분석
김미혜	2016	생명윤리적 관점 복제인간 논의	영화분석
목현정	2016	인본주의 가치 판단	소설분석
한광택	2016	동감 교육	소설분석

[표 2]는 복제인간을 소재로 하는 영화의 선행연구이며 [표 3]은 <네버 렛 미 고>의 원작 소설과 영화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영화 <블루프린트>를 대상으로 문학과 영화 속에서 재현된 복제 인간의 양상을 통해 인간복제에 관한 윤리적 고찰을 한 연구가 있다[1]. 같은 영화를 대상으로 복제를 위한 원본 인간의 욕망으로 탄생한 복제인간이 원본과 모녀 관계로 설정되면서 겪게 되는 문제의식을 다룬 연구도 있다. 이 연구에서 주요 논쟁점이 등장한다. 첫째, 복제인간과 원본인간의 동일성 문제이다. 둘째, 복제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기형과 돌연변이 문제이다. 셋째, 복제인간을 사물화 하는 문제이다. 넷째, 기존의 가족 개념을 배제한 과학 기술로 탄생한 복제인간이 야기하는 비자연적인 행태에 대한 문제이다[2][3]. 영화 <블레이드러너>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 자본사회에서 과학기술의 진보에 대한 인간의 불안을 통해 삶의 존재 가치와 인간성에 대한 문제를 다룬 연구도 있다[4]. 이외에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유형을 가족, 친구, 연인 또는 주종 관계 혹은 인간을 대체하거나 인간적 경계를 해체한 관계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피조물을 인간과 동일시하여 자본주의와 과학기술로 인한 소외된 존재로 조망한다. 아울러 다원화된 시대에 인간과 피조물이 공생하는 방향과 인간의 존재 방식에 대해 고찰하였다[5]. Matthew Eatough는 소설 <나를 보내지 마>에서 헤일섬 학교의 교육을 통해 복제인간들의 성격 형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헤일섬의 교육이 개인의 특이성을 존중하며 그 개인의 재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사회화에 집중하고, 보살핌과 갈호 같은 정서적 노동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6]. 교육적 관점에서 예술교육의 미학성을 휴머니즘과 연관시킨 연구도 있다. 조작된 미술 교육과정에도 불구하고 토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고, 인간의 본성이 아닌 본질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7]. 그 외에 캐시의 동감 능력에 대한 비판과 생명공학의 목적성이 지닌 폭력에 대한 연구도 있다[8][9]. 슬로터다이크는 교육이 아닌 유전공학을 통해 인간의 도덕성을 제어하여 사회 요구에 맞는 새로운 인간상을 상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복제인간이

만들어지는 시대를 포스트휴먼 시대로 정의하고 인간의 정체성은 분할되고 공유되며 복제될 수 있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화 속 캐릭터를 분석한 연구이다[10]. 김미혜는 복제된 인간들의 우애와 희생적 태도를 통해 생명공학과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복제 인간을 분석하였다[11]. 또다른 연구는 아감벤의 이론인 존재윤리학을 배경으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간성의 위기를 극복할 자유와 진리의 의미를 찾고자 했다[12].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인간과 복제인간의 관계 또는 파생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주목했다. 또한 인간이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소외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인간과 피조물이 공생하는 시대에 필요한 윤리적 관점과 구현되어야 할 인간적 가치들을 분석하였다.

III. 푸코의 권력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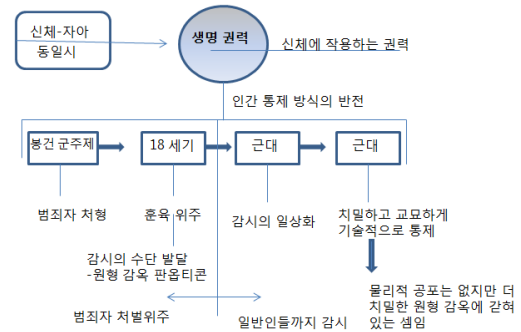


그림 1. 생명권력의 관점에서 인간통제방식의 변천과정

푸코의 권력이론과 주체의 문제는 중요한 주제가 된다. [그림 1]은 생명권력의 변화과정을 보여준다. 봉건군주제 당시에는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18세기 이후부터 일반인들까지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근대에 이르러 더욱 치밀한 기술적인 통제의 방식을 취하게 된다. 푸코의 이론에서 주체는 권력에 의해서 구성되거나, 혹은 권력이 부여한 장을 벗어나기 위해 저항하는 존재이다. 반대로 권력은 이 다수의 저항 지점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권력관계를 끊임없이 생성한다. 권력의 다양한 작동 방식 중에서 규율권

력과 생명권력을 살펴본다. 규율권력은 주체를 특정한 주체로 개별화시키는 기술이다. 특히 공간과 시간을 나누고 통제하는 방식을 통해 개인을 개별화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생명 권력은 종으로서의 인간을 제어한다. 작동방식은 내치와 안전장치를 들 수 있다[13][14]. 사법 권력에서 죄인의 신체에 고통을 유발하는 형벌은 일종의 정치적 의식이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 군주는 분노를 표출하고, 군중들은 군주 권력에 대한 공포와 경외를 경험하게 된다. 나아가 신체형은 공명정대한 법률을 집행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하도록 한다. 이후 잔혹한 신체형의 처벌방식이 완화되지만 주권자의 의지로 인한 변화는 아니었다. 권력 효과에 의해 형성된 육체의 지배과정에서 발생한 사건과 사회구조의 변화와 관계된다[14].

근대적 공간인 학교는 주체를 개별화시키기 위한 세부항목들을 규정한다. 이들은 나이, 성적, 품행에 따른 규율을 정하거나 운동, 동작, 자세, 속도 등 과 같은 기계적인 수준으로 신체를 작동시킨다. 학교가 규범을 학습하여 일탈을 예방하는 기능을 가진다면 감옥, 정신병원은 규범에서 일탈한 개인을 가둔다. 이러한 공간들에서 개인은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온순한 신체로 변형된다. 규율권력을 통해 병원, 학교, 군대, 공장 같은 공간에서 개인들은 반발 대신 규율에 익숙해지고 집단은 안정을 취할 수 있다. 규율권력이 개인을 개별화하는 방식 중 하나는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다. 시간표를 통해 일정한 업무를 할당하고, 반복하도록 한다. 조직화된 시간표를 통해 개인의 활동은 보다 생산적인 활동을 하도록 주입받는다. 이와 함께 유효노동을 확보하고 규율에 적합한 최적의 모델을 제시하게 된다. 이 모델은 정상과 비정상의 모델로 양분된다. 규범에 부합하는 정상의 모델은 군주의 의지로 표현된 법과 같은 규범과 다르다. 권력의 작동방식은 집단 내 편차를 측정하고 차이점을 조정하여 동일한 범주의 주체를 만들어낸다. 이 방식은 국가의 고유한 통치활동으로 사회구성원인 인간 전반에 적용된다. 적절한 질서 유지의 틀 안에서 국력이 증가될 수 있도록 인구수, 생필품, 보건과 순환을 조절하였다. 인간은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인간 활동의 생산물과 상품의 순환 상 주체이자 대상이다. 인

구의 수를 조절하기 위해 공중위생을 유지하는 일이 포함된다. 18세기에는 인간의 생존과 생활 전반에 관여하면서 범죄를 포함한 개인의 행동까지도 통제하고자 한다. 과거 생사여탈권을 주도하던 권력은 인간의 생물학적 요소에 정치적 전략을 부여한다. 신체를 조련하여 효과적인 통제체제에 순응하도록 하면서 출생, 사망, 건강을 관리하는 생명 권력으로 변모한다[14]. 이 영역에서 권력은 사회구성원의 공동 재산을 수호하기 위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폭력의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이를 통해 병자는 분리되고 생명조절의 장치로서 권력이 개입한다.

IV. 영화 분석

4.1 내면화된 규율

주요 등장인물은 복제인간 캐시, 루스, 토미 그리고 헤일섬 학교의 교장과 갤러리의 마담 그리고 루시교사는 일반 인간이다. 캐시는 다른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토미를 위로하고 토미의 실수도 너그럽게 용서하는 품성을 지녔다. 그녀는 토미로부터 선물 받은 카세트테이프 노래 <네버 렛 미 고>를 들으며 '아기를 빼앗기는 상황'에 대해 상상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비록 노래의 진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 노래를 들으며 자신의 내면으로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 뛰어난 공감 능력과 이타적인 태도가 몸에 배인 모습이다. 또한 미술 작품에 재능을 가지고 있어 갤러리에 자주 작품을 보내는 모범 학생이다.

캐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밖의 공간은 매우 위험하다고 여기며 위반할 경우 신체에 가해질 처벌에 대해 공포심을 갖고 있다. 별다른 감시가 없지만 그들은 이러한 규율을 내면화하여 준수하고 있다. 학생들은 규율을 준수하면 안전을 보장받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루시 교사가 외부로 나가려는 시도를 해 볼 것을 권하지만 학교의 아이들은 바로 거절한다. 이러한 내면화된 규율은 장기를 기증해야 하는 임무를 완수하기까지 불필요한 동요와 저항을 예방하려는 목적에 부합한다. 이후 루시 교사가 복제인간의 실체를 설명했

에도 학생들은 어떤 동요와 저항도 보이지 않는다. 지금 현재의 삶에 충실할 뿐이며 자신들의 현재 처지와 관련된 제도에 대해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는다. 학교 밖으로 이탈할 경우 겪게 될 신체에 가해질 고통과 죽음의 공포가 장기를 제공하기 위해 몸을 열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전자는 규율을 어긴 데 대한 처벌이지만 후자는 일종의 소명으로서 거부할 수 없는 운명 혹은 자신의 정체성으로 수용하기 때문이다. 캐시가 간병인이 되기 위해 코티지를 떠날 때 타는 차량의 뒷편에 “National Donor Program”이란 글자가 보인다. 장기 기증은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이며 수혜자와 희생자의 기준과 개념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수혜자가 지불하는 금전적 보상이나 기증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의 명시가 없으며, 희생자는 원본 인간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고 있다. 헤일섬 학교의 교장은 ‘유예’를 신청하러 간 캐시와 토미에게 “불치병으로 고통 받는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유예’가 불가능한 이유가 개개인의 신체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건강과 장수를 보장해 주는 일종의 사회구성원들의 협의된 사회보장제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으로 이 영화는 생명권력을 내면화한 인간의 모습을 잘 풍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2 규율권력, 학교

학교는 사회와 국가의 존속에 필요한 사회구성원을 교육한다. 그 내용은 인력자원으로서 습득할 기술과 사회적 규범이다. 학생은 교육의 결과를 평가받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여 살아갈 수 있다. 영화 속 배경의 사회는 생명 연장이 이루어지는 꿈의 사회다. 인간의 신체적 한계성, 유한성의 극복이 가능한 곳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복제인간의 희생이 필요하다. 헤일섬 학교에서 그들이 배운 것들은 일방적인 희생의 제물이 아니라 고귀한 의무를 지닌 존재라는 각성이다. 그것은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는 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이상적인 안전의 공간이며, 그들은 자유롭다고 느낀다. 이곳의 학생들은 학교 규범과 수업 내용을 충실히 수행할 때 받는 토큰의 보상을 통해 교환

회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물품을 교환한다. 보상의 물품은 학교 밖에서 가져온 누군가 쓰다버린 헌 물건들이다. 헌 물건이라고 불평을 하거나 같은 물품을 소유하려는 욕심을 부려 갈등하는 상황은 없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의견을 내지 않는 데 익숙하며 그들은 모두 편안하다.

교사 루시는 토미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 미술 실력이 뒤처지고 제대로 교류하지 못하는 모습을 비난하지 않고 ‘정상적’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미술 실력에 대한 창의성 여부도 무시하고 살라는 조언을 한다. 이는 원본 인간의 특질이 준 형편없는 미술 실력에 대해 토미의 한계를 위로하는 서사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의 특성을 무시하고 정해진 규율에서 이탈할 경우 소외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또한 기증자로 생을 마감하는 처지에서 직업 선택이나 거주 지역의 자유조차 박탈당한 삶은 복제인간이라는 태생적 한계라기보다 인간의 삶에서 개인의 욕망을 제어하거나 구속하는 사회의 규율에 대한 은유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학교를 졸업하고 장기 기증 전 머무는 기간 동안 그들은 식당에 가서 음식 주문을 하는 실습을 한다. 자신이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기보다 바로 앞 사람의 주문 내역을 똑같이 말하는 모습이 나온다. 내재화된 규범에서 타인을 모방하는 모습이다. 그들은 ‘예술적 창조’에 대한 교육을 받았지만 갤러리에 걸릴 만한 기교가 뛰어난 작품을 만드는 일에만 열중했을 뿐이다. 단지 장기 기증을 하기 전까지 그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필요한 새로운 규범의 습득이 필요할 뿐이다.

인간은 서로 다른 욕구를 지니며, 학습방법도 다양하다. 그러므로 사회적 역할도 다양하며 교육은 다양한 욕구와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학교는 개인의 개성에 적합한 개발을 하기보다 사회화의 목적에 치중한다. 그 내용은 사회적 일원으로서 습득해야 하는 가치와 규범이며 인력자원으로서의 직업훈련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은 각자의 능력에 의해 경쟁하고, 숙달된 직업 훈련을 통해 전문가의 자질을 갖추어 사회로 진출하는 것이 사회의 긍정적 발전이라는 이상적 모델이다. 이것은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더욱 결속시키고, 그 집단에 필요한 구성원을 충당

하는 방식이 된다. 복제인간들에게 주입된 교육인 ‘기증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고 제도에 순응하도록 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

헤일섬 학교는 비 헤일섬 출신 기증자들이 동경하는 요소가 있을 정도로 특별한 곳이었다. 이곳에서 학생들이 사랑과 존경을 받는 조건은 훌륭한 예술품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예술활동은 규율의 특징 중 하나인 ‘유용한 시간의 생산’이다. 갤러리에 보낼 수 있는 우수작품을 선별하여 서열을 만들고 품행을 정해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이들이 복제인간이 아닌 원본 인간의 학교생활과 유사하다.

4.3 복제인간에 대한 윤리적 논란 배제

영화<더 문>에서 복제인간에게 금지된 것은 ‘자신이 복제인간임을 아는 것’이었다. 인간의 기억을 이식받고 자신은 인간이라 인식한다. 나중에 복제된 사실을 알고 분노하며 탈출하고 싶어한다. 이와 달리 헤일섬 학교의 학생들은 자신이 복제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교사 루시가 헤일섬 학교에서 장기 기증의 실체를 폭로하지만 학생들은 동요하지 않는다. 이 영화에는 복제인간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언급이 없다. 과학계와 종교계 등의 찬반 논쟁이 불붙을 정도의 연구 윤리와 인권 침해의 논란이 등장하지 않는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1970년대에 이미 생명 복제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은 미래 사회가 아닌 현재 사회에 대한 은유로 보기에 적합하다. 그리고 장기 기증의 수혜를 받는 원본 인간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애초에 복제인간과 원본 인간의 대립과 갈등을 다루지 않으려는 영화의 의도다. 둘째, 인간 복제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가 배제되었다. 그들은 흡연과 같이 신체에 유해한 행동을 저지 받고 부상을 당할 경우를 대비해 보호받으며 생활한다. 그들 중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는 없다. 대부분 20대 초반에 장기 기증을 하기 때문에 노화를 겪거나 질병을 겪지 않는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기증’ 자체가 아니라 세 번째 기증 이후에도 후시 살아남아 간병을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상황이다. 그들은 ‘기증’으로 인한 육체적 쇠약의 원인은 간과한 채 기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소외당

할 상황에 대해 괴로워한다. 생명권력은 비정상인을 분류하고 격리한다. 더 이상 기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수행이 끝났으며, 안전의 범주에서 배제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복제인간의 비자연성에 대한 문제이다. 이들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가족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왔고, 가족의 부재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들의 태생은 원본 인간들이 가진 가족의 이념과 체계에 무관하다. 캐시는 자신이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생각에 슬퍼하지만 그러한 인식은 전체 복제 인간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생명 권력이 인간이 갖는 자연적인 감정과 무관하게 통치체계에 ‘복종 가능한 대상’을 생산하고자 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4.4 진정한 저항, 인간적인 삶

토미는 학교에서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한다는 열등감에 시달렸고, 놀림을 받았다. 그런 그가 졸업한 후 열심히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는 ‘유예’를 신청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비 헤일섬 출신자에게서 전해들은 ‘유예’란 복제인간들이 장기 기증을 몇 년 간 미루고 연인과 지낼 수 있는 제도다. 토미는 연인 사이를 증명하기 위한 조건으로 예술작품을 제출하고자 한다. 예술작품은 작가의 영혼이 투영되었기 때문에 ‘유예’를 신청하는데 적합할 거라고 믿었다. 토미는 이미 기증을 두 번이나 겪었지만 남은 삶을 사랑하는 캐시와 함께 하고 싶었다. 장기 기증에 대해 순응하는 태도를 취하던 이들이 왜 장기 기증의 ‘면제’가 아닌 ‘유예’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는지다. 장기 기증 자체를 복제인간으로서의 정체성에 결부시키지 않고, 사회적 책무를 취하는 인간의 삶으로 치환할 수 있다고 본다. 토미는 어릴 때 미술에 대한 자신의 재능이 부족한 것을 비판했지만, 성인이 되어 예술의 중요한 목적을 깨닫게 되었다. 원본 인간에게서 물려받은 재능의 한계성을 뛰어넘어 타인과 비교하는 상품의 가치가 아닌 자신의 영혼을 드러내는 작업에 몰두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토미는 그림을 그리는 일이 남에게 보여주지 위한 일에서 나아가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삶의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토미는 캐시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

를 듣고 공감하며, 사랑의 의미를 확인시켜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병사를 교체하여 캐시에게 더 이상의 슬픔을 안기지 않으려 노력한다. 결국 그는 ‘유예’ 제도가 없다는 말에 절망하지만 의연한 태도로 마지막 장기 기증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한다.

캐시는 간병사로 일하기 전 알게 된 자신의 성적 욕망에 대해 두려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긴다. 토미와 루스를 통해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형태로 인식하게 된다. 이후 캐시는 루스가 떠난 뒤 토미와 연인 관계를 회복한다. 캐시는 원본의 특질이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고, 더 이상 원본 인간을 찾지 않는다. 루스는 가장 친한 친구였던 캐시를 질투하여 토미와 연인 사이가 되었다. 캐시와 토미가 연인이 되면 자신이 소외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신의 욕구 충족이 제일 우선이었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의존적인 삶을 살아왔다. 마지막 기증을 앞두고 토미와 캐시가 ‘유예’를 얻을 수 있기를 염원하며 어려움을 무릅쓰고 마담의 주소를 전달한다. 비록 기증자로서의 삶은 자의적이지 않지만 인간의 유한한 삶에서 부여하고 싶은 가치를 찾으려는 열망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제공받아 수명 연장을 누리는 수혜자들은 어떤 삶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지 질문하게 한다. 캐시는 간병사를 자원하여 처음에는 불편함과 고독을 경험하지만 자신의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덕분에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과 신뢰 받는 인물로 살아간다. 친구들과 의존적 관계를 벗어나 자신의 생각을 주체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며, 불가피할 경우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법을 터득한다. 루스와 토미를 차례로 간병하며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자 애쓴다.

캐시는 토미와 루스를 떠나보낸 후 독백한다. “당신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다른가?” 캐시는 권력에 매몰된 삶이 아닌 자신을 윤리적인 주체로 인식하고 자발적인 실천을 행한다. 이는 외부의 힘과 별개로 자신의 특이성을 발견하고 제어하는 창조성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푸코는 이러한 실천에 의해 자기화를 실현하고 자유로운 주체가 생성된다고 본다[15].

V. 결론

본고는 영화 <네버 렛 미 고>를 복제인간과 원본 인간의 이원적 관점이 아닌 근대 이후 변화된 권력 양상의 구조하에서 권력에 저항하여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은유로 해석하고자 했다. 18세기 이전 군주 권력은 범죄자에게 신체형을 부여하고 대중에게 공포를 각인시켜 규율에 복종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생산 체제가 확장되면서 인간의 신체는 파괴의 대상이 아닌 노동력을 지닌 생산재로 보게 되었다. 권력은 이러한 대상을 교정시켜 신체 활동을 통제하고 새로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생명권력과 규율권력으로 변모하게 된다. 필자는 이 영화에서 장기 기증의 운명을 타고난 복제인간을 권력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자화상으로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첫째, 기존의 복제인간을 소재로 한 소설과 영화들이 미래를 배경으로 했다면, 영화<네버 렛 미 고>는 1970년대부터 90년대를 배경으로 회고록 형식을 취한 점이다. 권력구조의 형식이 먼 미래가 아닌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둘째, 복제인간과 원본 인간의 갈등이 아닌 복제인간들이 느끼는 사랑과 질투, 연민의 감정에 주목하고, 삶의 가치를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했다. 이는 복제인간의 특성이 아닌 인간의 특성이다. 셋째, 토미가 예술적 성취를 통해 영혼을 증명하고자 했던 노력은 생명권력의 억압 속에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개성을 드러낸 인간적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장기 기증의 수혜자와 기증자의 입장을 구별하기보다 삶을 억압하는 사회구조에서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로 보고자 한다.

참고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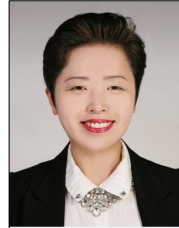
- [1] 천현순, “문학과 영화 속 복제인간,” 카프카연구, Vol.31, pp.113-132, 2014.
- [2] 정원식, “영화<블루프린트>속에 투영된 인인간 복제 모티프의 특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 11권, 제1호, pp.123-133, 2011.

- [3] 강순규, “비인간적인 인간과 인간적인 복제인간,” 영화, Vol.4, No.2, p.133, 2011.
- [4] 정미숙, “SF영화 속 생태주의-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읽는 <블레이드러너>,” 드라마연구, No.27, pp.71-92, 2007.
- [5] 이다은, “SF영화 속 인간과 피조물이 사유하는 방식,” 영화, Vol.8, No.1, 2015.
- [6] Matthew Eatough, “The Time that Remains: Organ Donation, Temporal Duration, and Bildung in Kazuo Ishiguro’s Never Let Me Go,” Literature and medicine, Vol.29, No.1, pp.132-160, 2011.
- [7] 목현정, “<나를 보내지 마>에 나타난 휴머니즘,” 영어영문학연구, Vol.58, No.1, pp.41-66, 2016.
- [8] 한광택, “동감과 교육에 관한 <나를 보내지 마> 가르치기,” 영미문학교육, 제20집, 제3호, pp.165-190, 2016.
- [9] Tiffany Tsao, “The Tyranny of Purpose: Religion and Biotechnology in Ishiguro’s Never Let Me Go,” Literature & Theology, Vol.26, No.2, pp.214-232, 2012.
- [10] 김응준, “만들어지는 인간, 만들어지는 정체성, 포스트휴먼 정체성?,” 인문과학, 제52집, pp.47-66, 2013.
- [11] 김미혜, “<네버 렛 미 고>를 통해 본 복제인간 윤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8호, pp.121-129, 2017.
- [12] 김대중, “Dialectics of Utopia and Dystopia and Bio-politics in Never Let Me Go,” 인문과학연구, 제36권, pp.200-221, 2013.
- [13] 안현수, “푸코의 권력이론의 양상과 ‘주체’의 문제,” 동서철학연구, 제72호, pp.304-326, 2014.
- [14] 미셸 푸코, 이규현 옮김, 성의 역사 2- 쾌락의 활용, 나남, pp.21-131, 2004.
- [15] 미셸 푸코, 이해숙, 이영목 옮김, 성의 역사 3- 자기애의 배려, 나남, pp.57-90, 2004.

저 자 소 개

최 영 미(Young-Mi Choi)

정희원



- 199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문학사)
 - 2010년 8월 : 한국방송통신대 국문학과(문학사)
 - 2012년 2월 : 경기대 문화예술대학원 독서지도학(독서지도학 석사)
 - 2016년 9월 ~ 현재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독서심리학, 문화콘텐츠, 영화

조 이 운(I-Un Jo)

정희원



- 1993년 2월 :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문학사)
 - 2008년 2월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석사)
 - 2011년 7월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법학석사)
 - 2016년 2월 :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부동산 경제학박사)
 - 2016년 2월 :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 2016년 2월 ~ 현재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학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부동산금융, 전세가격, 주거부담, 거시경제